

제1회 무등기 사회인 야구 결승전 '천왕' 페가수스 무등기 품고 날다

지왕리그 재규어스, 슬러거스 꺾고 초대 챔피언
 인왕리그 아도니스 막강 타력으로 우승 트로피

광주일보 주최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최후의 대결이 2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치러졌다. 페가수스가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천왕급 우승컵을 차지했고, 재규어스와 아도니스는 각각 지왕리그와 인왕리그를 제패했다. 페가수스와 디스커스가 맞붙은 천왕리그 결승전은 최고의 실력을 보유한 팀들의 대결 만큼 명승부가 됐다. 페가수스 선발 김상호와 디스커스 선발이 이상범이 6회까지 1실점의 호투를 기록하며 팽팽한 마운드 대결을 벌였다. 1-1로 맞선 7회말 페가수스

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다. 첫 타자로 나선 김상호의 안타에 이어 폭투가 나오면서 무사 3루, 1사에서 디스커스가 만루작전을 펼쳤지만 페가수스 정동준의 타구가 1루수 옆을 빠져나가면서 끝내기 안타가 됐다. 페가수스는 짜릿한 2-1 역전극을 펼쳐며 천왕리그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지왕리그 세한기업 재규어스는 라이벌 슬러거스와의 대결에서 3회에 6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13-4로 승리를 거뒀다. 재규어스의 사령탑 정경국은 결승전 완투승까지 기록하면서 무등기 초

대 지왕리그 우승팀 감독에 등극했다. 인왕리그의 결승전은 아도니스의 승리로 끝났다. 블루삭스와 맞붙은 아도니스는 매 이닝 득점에 성공하면서 13-9로 인왕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각 리그 우승을 차지한 페가수스·재규어스·아도니스에게는 상금 100만원이 주어졌으며, 준우승팀과 공동 3위팀에게는 각각 상금 50만원과 야구공 1타가 상품으로 증정됐다.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10만원의 상품권 그리고 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5만원 상품권이 돌아갔다. 한편 대회 장소제공 및 운영에 도움을 준 정락영 광주베이스볼리대 대표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천왕리그 결승
 디스커스 0100000-1
 페가수스 0001001-2
 △슬러거스 김상호
 △우수감독상 오광석(페가수스)
 △우수선수상 이상범(디스커스)
 ◇지왕리그 결승
 재규어스 0460300-13
 슬러거스 0002020-4
 △슬러거스 정경국
 △우수감독상 정경국(세한기업 재규어스)
 △우수선수상 남정우(슬러거스)
 ◇인왕리그 결승
 블루삭스 0035100-9
 아도니스 312124X-13
 △슬러거스 김준
 △우수감독상 이병관(아도니스)
 △우수선수상 조진문(블루삭스)



"이겼다" 페가수스 선수들이 20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천왕리그 디스커스와의 결승에서 1-1로 맞선 7회말 정동준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영현 사무국장 "야구계 호응 좋아 첫 대회지만 흥분"

"첫 대회 입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에서 흥분하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인 야구계의 호응도 좋고요, 참가팀의 매너도 좋아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한 이영현(42) 사무국장은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는 좋은 여건 속에서 110% 이상의 성과를 낸 훌륭한 대회였다"고 자평했다. "경기장이 많이 않아 분산해서 치러지다 보니 집중되지 못하고 작은 오류들은 있었지만, 대회가 시작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팀이 어렸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인 야구의 특성상 가족들의 참여와 관람이 많은데 경기장이 열악하게 아쉬웠다"며 "가족들이 다들 나와 아이슬할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문제는 아마추어 전용 야구장이 건설되면 다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용 시설에서 대회가 치러지기를 소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열정과 선·후배간 우정이 우승 원동력"



페가수스 오광석 감독
 "선수들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어 이런 결과다. 3달 동안 한게임 해준 선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 천왕리그 우승팀 페가수스 오광석(38) 감독은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열정이 이룬 결과라고 말했다. 2001년 창단 이래 7차례나 우승을 거둔 정도로 잘 알려진 페가수스는

결승까지 4경기 완투승 "동료들에 감사"

천왕리그 MVP 김상호
 "끝까지 믿어준 동료들이 있어서 MVP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다."
 페가수스의 투수 김상호(34)가 결승전에서 대회 4승째를 수확하며 MVP의 자리에 섰다. 김상호는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디스커스 선발 이상범과 팽팽한 투수전을 벌인 끝에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며 팀에 승리를 안겨줬다. 김상호는 "체력적으로 힘들고 긴장도 꽤서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들이 잘해 주어서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모두 완투승을 거뒀다. 완투의 기회를 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고 공을 돌렸다.

"즐겁게 이기는 야구... 이젠 전국대회 도전"



재규어스 김치균 단장
 "즐거움 야구, 이기는 야구를 추구한다. 지왕리그 우승을 차지한 세한기업 재규어스(2001년 창단)는 10년이 넘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20~30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젊은 팀이다. 김치균 단장은 "열심히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 2009년부터 세한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광

유격수 그물수비... 고비마다 '한방' 해결사

지왕리그 MVP 국범석
 "야구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우승을 위해 애써준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세한기업 재규어스 국범석(33)이 '안정된 수비'와 '한방'으로 팀의 우승 행진을 이끌며 지왕리그 MVP에 선정됐다. 팀의 유격수로 끝판왕 수비를 선보인 국범석은 준결승전 만루포를 포함 이번 대회에서 2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팀에서 가장 승부욕이 강한 선수로 꼽히는 국범석은 "나한테 오는 공의 90%는 처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하고 있다. 또 올 시즌 기초체력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장타가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동생중 1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던 국범석은 사회인 야구 8년차다.

"평균 나이 43세... 신구 조화로 우승 일궜"



아도니스 이병관 감독
 "신구의 조화'로 우승을 일궜다. 인왕리그의 패권을 차지한 아도니스는 2001년 창단해 호응을 맞춰오고 있는 전통의 강호다. 평균나이 43세의 장년 부대지만 젊은 선수들 못지 않은 열정과 패기 그리고 결승전 우승을 책임진 27세의 젊은 투수 김준의 활약이 어우러져 무등기 인왕리그 초대 우승팀의 영예를 안았다. 아도니스 이병관 감독은 "목표는 우

본업은 한의사... 에이스에 주치의까지 담당

인왕리그 MVP 김준
 "MVP에 선정된 것보다 팀의 우승이 더 기쁩니다."
 아도니스 김준(27)이 인왕리그 결승전 슬러거스와 MVP의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김준은 여유 있는 경기 운영 능력과 120km대의 공을 앞세워 팀 우승의 주역이 됐다. 김준은 "대학시절 야구 동아리를 했었다. 우연히 모집글을 보고 아도니스에 가입했다"며 "사회인 야구 1년차인데 첫 대회에서 MVP가 돼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평균 나이 43세' 연륜 있는 팀 아도니스의 '젊은 피' 김준의 본업은 한의사, 팀의 에이스는 물론 주치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중 12만원 ⇒ 12만원
-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38만원 ⇒ 40만원
-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 트립형 매립차량용 상담후결정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 ▶ 본인네비 매립 = 12만원 ⇒ 12만원
-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최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형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 E770B 40만원
- ▶ E770S 43만원 / E7-B 51만원
- ▶ E1 7만원
- ▶ E2620 10~14만원
- ▶ E7 37만원
- ▶ E1 17만원